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 연구

정혜정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A Study on Check Pattern Expressed in Modern Fashion

Hye-Jung Chung

Division of Design, Seokyeong University

(2001. 10. 4 투고)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quire into Check Pattern.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Check Pattern, the checker using vertical and horizontal lines which was the universal plastic element and inquire into it in terms of era, designers and combined work. By doing so,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hase of the Check Pattern in world fashion and further forecast the future of checker design applicable to the 21th century fashion.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Mondrim's neo-plasticism has not only had a great influence on Op Art and Minimalism work but is deeply related to fashion and textile design. Mondrian used vertical and horizontal line ad the dualistic element.

2. The checker is estimated to have been used since the Etruian times, though uncertain, and largely divided into the Madras check and Scotland Check. Though the origin of the tartan representation of the Scotland check can not be accurately found out, it began to emerge in around the 13th century.

3. Check Pattern has began to be widely u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xtile industry since 1826 and been used in every typical Sihoutto appearing in each era up to the present. And Check Pattern is used most designer in the world, who represent their own personality in their works.

This study could find out that the checker is the element of infinite applicability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ophisticated and beautiful design using the chocker will be presented by many korean designer though the overall and systematic study of the checker.

Key words : Check Pattern(격자무늬), Vertical(수직), Horizontal line(수평선),
Neo-plasticism(신조형주의), Element(요소)

I. 서론

체크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전형적인 격자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특히 Tartan Check는 다른 체크에 비해 염색을 통해 구사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이 독특하여 개성과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한 사랑 받는 직물 중의 하나이다.

체크는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항상 있어왔다. 그래서인지 체크는 그 자체로 새로운 주제가 되기 보다는 주제 속에 조용히 묻혀 버리고 마는 참으로 익숙하고 편안한 아이템이다. 따라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체크패턴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체크패턴은 보편적인 조형 요소인 수직·수평선을 이용한 격자무늬이므로 수직·수평선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이론,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작품을 분석함은 물론 그의 영향을 받은 패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패션의 미학을 예술 사조와 관련지어 폭넓게 이해하고 참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 관계문헌, 일반복식사적, 디자인 관계문헌, 정기간행물, 기타 국내 논문 그리고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증적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 패션 잡지들의 화보를 중심으로 하였다.

II. 수직·수평선을 이용한 예술사조

패션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종합예술 중 하나로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기술의 일면은 물론 인간의 내적 미의식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조형물로¹⁾ 간주되어 왔으며 그 시대의 예술 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즉 수세기를 통해

예술은 패션에 영향을 끼쳐 왔으며²⁾ 그 가운데 미의식의 직접적인 표현물인 미술에 나타난 예술사조는 패션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³⁾

20세기 예술사조는 조형적인 면을 추구하면서도 단순한 사물의 형태를 재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독창성이나 자주성을 강조한 자기 표현의 경향을 띄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Neo-plasticism의 양대 창시자중 한사람인 Mondrian은 그의 작품에 수직·수평선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그는 “자연의 어느 곳이나 존재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형 요소”를 수직·수평선이라 지칭하였다.⁴⁾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보편적인 조형 요소인 수직·수평선을 이용한 Mondrian의 Neo-plastic -ism과 이에 영향을 받은 옵아트(Op Art)와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Neo-plasticism

Neo-plasticism은 Mondrian을 중심으로 한 기하학적 순수를 추구하는 미학과 미술 운동으로, 1917년 Mondrian과 두스브르크(Theo Van Doesburg)에 의해 창립된 “데 스티(De Stijl)”파가 추진한 미술 운동을 통해 추구되었으며 이 형식의 순수성에 대한 주장은 회화·조각 뿐 만 아니라 건축·포스터·실내장식·그래픽 디자인 등 조형예술 분야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1917년 연작 <백과 흑, Blanc et Noir>에서 그는 수직과 수평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 캔버스 평면을 하나의 실재(實在)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Mondrian은 수없이 작은 면 분할에서부터 몇 개의 요소로 농축된 구성에 이르기까지 채색 혹은 비어 있는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다양한 화면 효과를 통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그에 의해 ‘선과 색채의 관계 표현만을 요구하는 회화’인 Neo-plasticism이 만들어지게 되었다.⁵⁾

Mondrian의 예술의 형성 과정은 자연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인상주의와 분석적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점차 추상화되어짐으로서 자신의 조형 이

념을 평생을 통하여 체계화시켜 나갔다. 그는 회화를 가장 순수한 조형 요소로 환원시킴으로서 절대적인 회화의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였으며 수직과 수평선에 의한 십자형 구성과 삼원색 그리고 무채색으로 제한된 작품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엄격하고 이지적인 미학은 De Stijl과 Neo-plasticism 운동을 전개했으며 회화의 본질적 심화에 있어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⁶⁾ 특히 Neo-plasticism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1911년 암스텔담에서 개최된 모던 쿤스트링(Modern Kunstring)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피카소(Pablo Picasso), 브라크(Georges Braque) 등의 입체주의 작품들에서 Mondrian이 받았던 충격에서 발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Mondrian으로 하여금 조형적 기법을 단순화시켜야 하며 가시적인 것의 다양성을 몇 개의 기호로 축소 표현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갖도록 만들었다. 그때까지 Mondrian은 네덜란드 풍경화주의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풍차나 연보랏빛 숲 풍경, 평원과 하늘 등을 그렸으나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체주의의 중요성을 체험한 그는 자신의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고 자연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화려함으로부터 분리시켜 단지 인간 정신의 규율에만 지배받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파리 체류 시절 그는 작품 하나하나에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요약·응축하며, 개별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을 위해, 그리고 세부적인 장식은 본질의 표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희생시킴으로서 점차적으로 가시적 세계를 형식 문법의 몇몇 원초적인 규칙에 환원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⁷⁾ 결국은 모든 사물에서 발견되는 평면적인 긴장은 '수직·수평선'이라는 두 요소로 요약되고 그것의 대립은 직각과 사각형 평면을 만들어 내며 이를 통해 수직·수평선은 균형을 이룬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이다.⁸⁾ 어떠한 모티프라도 철저히 단순화시키고 나면 똑같은 조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에서 그는 회화의 재현적 기능을 버리고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만을 추구했다.

한편 이러한 Mondrian의 예술관이 형성되게 된 배경에는 네덜란드의 지역성과 국민성, 엄격한 캘

빈주의적 가정환경과 교육을 통한 금욕생활, 그리고 신지학의 영향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 국토의 특이성, 즉 자연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서 정확, 계산, 통제라는 필요한 수단을 통해 인위적인 외관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는 Mondrian예술의 중심점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Mondrian은 1872년 3월 네덜란드의 엄격한 칼빈스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기독교 학교의 교장으로 특히, 그의 자녀들을 가장 엄격한 도덕적 규율을 통해 교육시켰다. 이는 전(全) 생애를 통해서 Mondrian의 절대에의 탐구, 보편적인 비전(Vision)의 추구 및 사고 과정의 완전한 추진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그의 예술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신지학의 영향(이원성)과 Mondrian의 작품 및 그의 영향을 받은 복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지학의 영향

신지학(Theosophy)을 블라바츠키(Helena Petrovna Blavatsky)부인은 "신지학은 종교가 아니고 신성한 지식이며 학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신지학이라는 용어는 희랍어인 'theos'(神), 'sophia'(智)가 합쳐진 말로 그 진정한 의미는 '신성한 지혜' 혹은 '신의 지혜'이다. 신성한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개인에게 계시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결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신성한 본질과 그 지적인 본질 자체에 있는 힘의 작용으로부터 '현상적인 보편성'을 연역해 내는 것이 신지학의 특징이다. Mondrian이 항상 보편적인 것, 혹은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Mondrian은 1909년에 신지학협회에 가입하여 1917년 탈퇴할 때까지 신지학에 몰두하였으며 특히 신지학자이자 시인인 쉐머커(M. H. I. Schoenmaekers)는 Mondrian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Schoenmaekers에 의하면 "생동하는 현실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예술가는 신비주의자"이며 "특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것"이 "스타일"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는 세계의 새로운 신령적인 이미지는 “조절 가능한 정밀성과 현실의 의식적인 침투, 그리고 정확한 아름다움”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조형적인 수학의 원리”에서 Schoenmaekers는 ‘공간=구체적 추진화=수직, 시간=구체적 역사=수평’이라는 양식은 수직=남성=공간=정적=하모니, 수평=여자=시간=동적=멜로디’로 표현한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개념들은 “De Stijl 운동”⁹⁾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주요 문제점들이었다. 이러한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 운동은 가장 엄격한 추상화 작업을 시도하여 표현 수단을 가능한 한 제한하여 수직선과 수평선만을 사용하게 되었다.¹⁰⁾

이를 통해 Mondrian은 우선 수직·수평적인 요소들을 남성적·여성적인 이원적 요소로 대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의 이원적 요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Mondrian의 이원적 요소

분류 특징	남 성	여 성
활동성	정적 요소 강함	동적 요소 강함
창의성	창조적, 표현적 요소 강함	보존적 요소 강함
진취력	진보적 요소 강함	방해적 요소 강함
정 신	정신적 요소 강함	물질적 요소 강함
선	수직선 요소 강함	수평선 요소 강함

여성과 남성, 물질과 정신으로 설명된 이 이원적 원리는 중국의 음양설과 놀랄 만한 유사성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사실은 신지학이 우주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상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형이상학적이며 실천 도덕적 해석으로 우주론적 철학인 이원론(二元論)은 동양문화를 일관하는 기본적인 질서 원리일 뿐 아니라 서양 사상의 기본 요소가 되어 의식과 물질,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론(Dualism)을 이루게 되는데 음양(陰陽)이 지니는 추상성은 이후 중요한 개념적 도구가 되고 있다.¹¹⁾

신지학에 있어서 여성적인 요소는 근본적으로 물질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에 대립하며, 남성

적인 것은 기본적인 본질에 있어서 정신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힘으로서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한다. 동시에 물질과 정신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원하며 합일체가 되기 위해 서로를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화 단계에서 Mondrian은 ‘의지’의 상징인 수직선과 ‘휴식’의 상징인 수평선이라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요소들의 대비로 우주를 요약했다. 그는 화면 전체에 이러한 작업을 확산시켰다. 좀 더 쉽게 그의 과정을 정의하자면 그는 세부를 중시하는 국소적 시각에서 본질에 접근하는 확대된 시각으로 넘어간 것이다. 제 1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네덜란드로 돌아온 Mondrian은 우주의 근원에 관한 탐구를 계속하면서 드디어는 모든 주제는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Mondrian은 예술의 모든 것이 항상 근본적으로 같다고 할지라도 서로 대립하여 반대되는 두가지의 인간 성향이 있다는 예술의 이원성으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구상 예술과 비구상 예술, 개인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특정 형태와 중립적인 형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 등의 이원적 대립을 말한다. 이러한 이원성은 수직·수평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설명된 이원적인 이론과 일맥상통한다.

Mondrian은 기하학적 형태와 추상성을 중립적인 것으로 제시했다. 그것은 곧 수직·수평선이 만들어 내는 사각형으로, 그 자체로 존재 가치를 지닌다.

Mondrian 그림의 수직·수평선과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사각형은 원래가 절대적으로 미적 가치를 지닌 것이며 어떤 형태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자연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두 요소-수직·수평선-는 어디에서나 존재하지만 자연현상들의 개인적이고 특정한 형태들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예술가는 감추어진 보편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¹²⁾으로 보면 수직·수평선은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2) Mondrian의 Neo-plasticism적 작품과 그의 영향을 받은 복식 분석

Mondrian 작품중 수직·수평선은 신지학의 영향인 이원론적인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보편적인 조형 요소라는 이론적인 바탕에 의해 확립된 것이었다. 그런데 초기의 자연주의적 그림에서 출발하여 완전한 기하추상에 이를 때까지의 그의 그림들을 조형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직·수평선은 자연 형태를 계속해서 단순화시키고 감축시킴으로서 도달하게 된 조형 요소임을 알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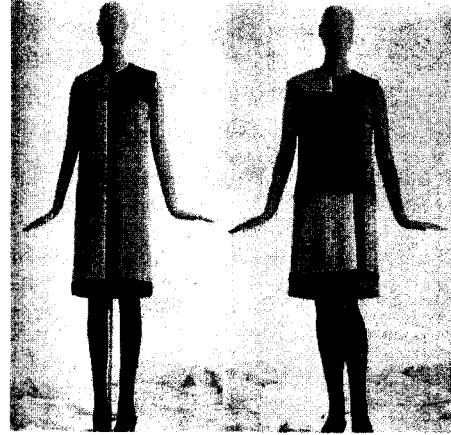
극단적인 기하추상의 수직·수평선에 이르는 과정은 상세한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큐비즘(Cubism)을 거쳐 짧은 수직·수평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 , -’의 구성들, 그 다음으로 채색된 사각형들로 된 구성들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수직·수평선과 3원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에 도달하게 된다.

패션디자이너들 중에는 종종 Mondrian의 Neo-plasticism적 작품을 응용하여 만든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의 Mondrian 드레스는 Mondrian의 빨강·파랑·노랑 색의 콤포지션을 그대로 복식에 재현시킨 것이다. 이 작품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1965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발표한 작품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해 디자인을 구성하고 삼원색인 빨강·파랑·노랑색으로 색채를 표현했다. 네크라인, 소매 라인, 행라인이 모두 직선이고 장식이 될 만한 칼라와 소매는 전혀 없고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로 선과 색채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이는 당시 1965년 9월 하퍼스 바자지에 의해 “미래의 옷이다- 단정적 추상, 수기 신호의 깃발, 명쾌한 흰색 저지(Jersey)로 명확하게 처리되었으며 옷을 입을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화되었다.”라고 호평받기도 하였다.

<그림 2>의 코트는 Mondrian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가를 복식에 재현시킨 것으로 마치 노랑색, 청색, 빨강색, 주황색, 분홍색 등 각종 색상의 리본을

얹어서 만든 코트 같으며 녹색과 갈색의 줄무늬 소매와 칼라가 조화를 이루었는데 1995년도 Todd Oldham의 작품이다.



<그림 1> One piece, Yves Saint Laurent, Collections 1965~66 S/S



<그림 2> Coat, Todd Oldham, Fashion News Vol. 33, p.134

2. Op Art와 Minimalism

Op Art와 Minimalism은 1960년대 이후에 나타

난 예술사조로서 앞의 Neo-plasticism 영향을 받았으며 패션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Op Art

Op Art는 Optical Art의 준말로 시각적 예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눈의 생리적인 것으로부터 비롯하여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조형 현상을 기본으로 하는 예술이며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생리적인 착각이 회화로 나타난다.¹⁴⁾

이러한 Op Art는 독일의 바우하우스(Bauhaus)와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기초로 하여 성장하였으며 Mondrian의 기하추상적 작품들은 Op Art의 등장을 예감하였다. 과도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며 자연과학에 가까워 미술가들은 예술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애용되는 무늬 또는 심리학적 실험에 지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극적이라 하여 비회화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Op Art는 기하학적 형태와 패턴에서 작자가 의도적이고 기술적인 배려에 의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인 유도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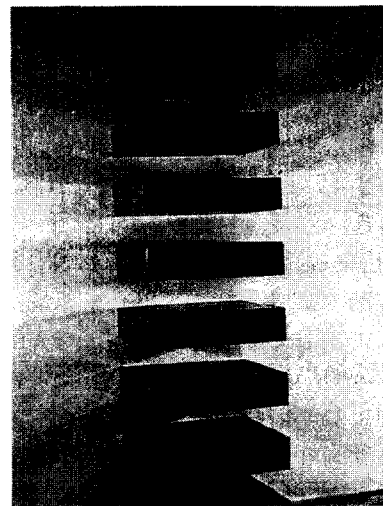
옵이라는 용어는 1964년 타임지에서 최초로 기사화 되었으며 1965년 영국과 미국에서 흑백의 대담한 무늬가 든 직물, 디스플레이, 또는 일반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으며, 이 운동의 특이한 성격은 거의 동시에 전문적인 분야와 대중적인 분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¹⁶⁾ 이는 칸딘스키(Kandinsky)와 Mondrian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말해 Op Art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나타난 지극히 정교하고 미묘한 시적이거나 극적인 그림과 조각등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차원이나 삼차원 작품을 통하여 교묘한 지각적 효과를 유발시키기도¹⁷⁾ 한다. 특히 1960년대 패션의 직물 문양으로 자주 등장하였으며,¹⁸⁾ 기하학적패턴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모호성과 혼란을 이용해왔다.

2) Minimalism

Minimalism은 근대 미술이 상(象)을 대상화하려고 했던 전통적 관념과 1950년대에 격렬한 표현

의 극치를 이루며 격동적인 심리학적 공간구성을 이루었던 추상표현주의(抽象表現主義)에 대한 반발로 출현하였다. 특히 1960년대 미국 화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예술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최소한의 요소까지 환원하고자 하는 예술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복잡한 현대 도시인들의 단순하고 자연적인 것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부각하게 되었다. 즉, Minimalism이라는 용어는 회화와 조각을 기하학적 추상의 꾸밈없는 본질로 환원시키려는 모더니즘적 목표를 함축하는 것으로, 순수한 미국 태생의 미술가들이 주도한 미술로는 최초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미술 운동이다.¹⁹⁾ 여기서 파생된 미니멀 아트(Minimal Art)는 1960년대 미국에서 행해진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회화와 조각에서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림 3> 무제, 도날드 제드

<그림 3>은 도날드 제드의 [무제]라는 작품으로 수직적 형태를 이루면서 같은 간격으로 쌓아올린 조각으로 연속체 속에서 택해진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고, 부분들의 길이는 화랑의 천장 높이에 따라 상자 수를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

미술을 통해 규명된 Minimalism 양식의 특성은 단일한 색채와 형태로의 환원을 나타내는 본질성, 사물 그 자체를 제시하는 물체성, 반사·투명·빛의 효과를 통한 특수한 전시 공간을 만드는 환경성, 반복 연속의 배열로 비관계적인 구성을 추구하는 반복성이며,²⁰⁾ 특히 반복성은 Minimalism에서 중요한 특성으로 복식의 반복성은 직선, 원, 삼각형, 사각형, 기타 모양의 다양한 배열을 통해 반복되는데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을 통하여 직각형, 평면 분리형, 한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즉 <그림 2>의 코트안 원피스는 각기 다른 굵기와 간격의 녹색과 갈색 줄무늬의 반복을 통해서 Minimalism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III. 격자무늬의 概觀

1. 정의 및 기원

체크무늬는 수직·수평선의 교차로 이루어진 격자무늬로 일반적으로는 선염(先染)한 날실과 씨실로 직조하여 만들어 내지만, 프린트 즉, 날염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Plaid(직사각형의 타탄이나 타탄과 유사한 천을 왼쪽 어깨에 걸친 것 혹은 크기에 한계 없이 적당한 각도로 수직·수직 무늬가 반복하여 교체된 것; A rectangular length of tartan worn over the left shoulder worn fabric or an imitation of tartan; A pattern of unevenly spaced repeated stripes crossing at right angle)와 Check(수직·수평선 같은 같은 색상과 크기의 예술 무늬가 똑같이 틀어 간 격자무늬, 정사각형에 체크보드처럼 생긴 격자무늬; a pattern in squares that resemble a checkboard)라고 하며 그 종류는 수백 종에 이르는데 이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격자무늬에 대한 역사는 아직 불명확하나 기원전 6세기 에트루리아시대 이전부터 이용되었으리라 추정되며²¹⁾ Plaid은 원래 Scotland의 고원지대 사람들의 모직으로 만든 어깨 걸이를 말한다. 이것은 Scotland의 민족 의상에 속하며 굵기가 다양한

선 즉, 선과 선이 교차됨으로써 형성된다. 한편 체크는 흑·백을 중심으로 보통 두가지 색이나 세가지 색만을 사용하며 정방형의 형태 또는 정방형을 자르거나 꺾어서 변형한 무늬도 체크에 포함된다.²²⁾

2. 종류 및 특징

격자무늬는 크게 마드라스 체크(Madras Check)와 Scotland 체크(Scotland Check)로 분류할 수 있다. 마드라스 체크는 인도의 “마드라스(Madras)”²³⁾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점정·빨강 격자무늬인 카튼 패브릭(cotton fabric: 면직물)을 일컫는 말이다.²⁴⁾

선염의 면수직 평직물인 Madras 체크는 뱃사람의 머리를 덮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초목염에 의한 특유의 발색과 염색의 번짐에 특징이 있으며, 인디안 레드(Indian Red), 인디고(Indigo), 골드(Gold) 등을 중심으로 색상의 변화가 다양하고 풍부한 무늬를 지닌 것이다. Madras 체크는 제 2차 대전후 미국에서 유행하여 남성용 셔츠(shirt), 반바지 등에 사용되었고 현재는 여성용 Shirt, 블라우스, 바지에까지 사용되고 있다.

Scotland 체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중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양식이 Tartan Check는 고대 Scotland 고원지대(고산지대, 고지: 高地, 하일랜드, Highland)의 씨족들에게서 유래되어 계승·발전된 것으로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정확한 기원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기록상에 13세기경부터 등장하고 있다. 1747년 고원지대의상 금지령에 따라 착용이 불법화 되었으며 1782년 타탄 금지령이 폐지되었으나 각종 무늬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잊어버려 타탄 본래의 무늬가 그대로 후대에 전해진 것은 별로 많지 않았다.

19세기에 들어서서는 Scotland 고원지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조지 4세(George IV)와 Victoria 시대를 통해 Tartan을 원래대로의 재현하고 올바로 전수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며 또한 Scotland인들이 일상생활에 타탄을 계속해서 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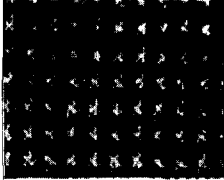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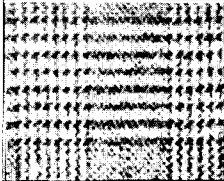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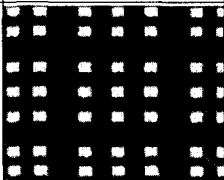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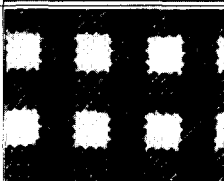
함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면서 금세기에 들어와서 Tartan Check는 단순한 Scotland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Madras 체크와 Scotland 체크의 특징을 비교·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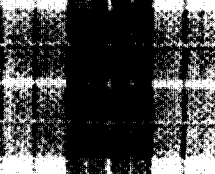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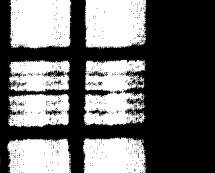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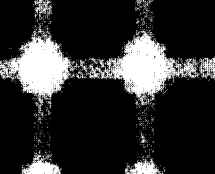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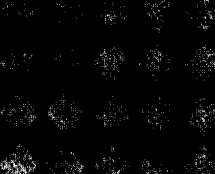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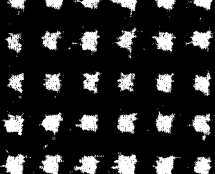
또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체크무늬를 도표로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2> Madras 체크와 Scotland 체크 분석

특징 \ 분류	마드라스 체크	스코틀랜드 체크
발생지	인도(마드라스)	스코틀랜드(고원지대)
조 직	평직	능직
소 재	면직물	모직물
색 채	채도가 높고 밝은 색 조합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조합
분위기	얇고 시원한 느낌	따뜻하고 화려한 느낌
무늬	다양한 무늬	전통적 무늬
유래	벳사람 머리에 쓴 천에서 유래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씨족들에서 유래

<표 3> 체크무늬의 종류별 분석

종류 \ 분류	형 태	특 징
건클럽 체크 (Gun Club)		1874년 미국 수렵 클럽이 회원의 유니폼으로 지정한데에서 유래된 것으로, 같은 색의 농담, 또는 다른 색 두 세퍼드 체크를 조합해서 만든 체크무늬
글랜 체크 (Glan)		글랜어콰트체크(Glan Urquart Check)의 약칭으로 스코틀랜드 엘윅(Elwick)강을 낀 글랜어콰트 근교에서 제작된 것으로, 가는 선이 다발로 모여 있고 그것이 다시 큰 격자를 만들고 있는 독특한 클래식 패턴으로 검정색과 흰색이 많이 사용된 체크무늬
마드라스 체크 (Madras)		인도 마드라스 지방에서 짜여진 가는 번수 면직물로 원래 초록염 실로 짜여졌으며, 세탁하면 독특한 효과가 나타나는 여러 색으로 구성된 체크무늬
세퍼드 체크 (Shepherd)		흑과 백의 폭(7~8 mm)이 같은 체크무늬로, 흑과 백이 양쪽실(흑은 색)의 혼합으로 연결됨. 사문직이며 스코틀랜드의 양을 치던 사람이 사용하면서 유래된 체크무늬

<p>스티치드 체크 (Stitched)</p>		<p>격자무늬를 구성하는 경사와 위사가 각각 스티치 풍으로 짜진 것으로, 무늬 바탕을 구성하는 실보다 굵은 실이나 실을 다발로 이용한 체크무늬</p>
<p>오버 체크 (Over)</p>		<p>한 격자무늬 위에 또 다른 격자무늬가 겹쳐져서 하나의 패턴을 이룬 것으로, 얇은 격자무늬 바탕의 짜임이 섬세한 체크무늬</p>
<p>움브레 체크 (Ombre)</p>		<p>한가지 색의 농담으로 된 체크무늬로, 기본이 되는 선의 한쪽이나 또는 양쪽에 점차 바탕색에 녹아들어 가는 것 같이 잘 조화된 체크무늬</p>
<p>타탄 체크 (Tartan)</p>		<p>스코틀랜드 고지인들이 어깨 걸이(Plaid)로 쓰던 다채로운 체크무늬</p>
<p>톤온톤 체크 (Tone on Tone)</p>		<p>톤온톤은 색조를 여러 겹으로 겹친다는 의미로, 색상이 같은 색조가 다른 각각 1조의 세로 줄무늬와 가로 줄무늬로 구성된 체크무늬</p>
<p>투앤투 체크 (Two and Two)</p>		<p>두올의 흰 실과 다른 색인 두올의 실이 서로 교차하여 배열된 평직인 작은 체크무늬</p>
<p>할리퀸 체크 (Harlequin)</p>		<p>주판알과 비슷한 아틀르겔(울긋불긋한 옷을 입는 익살 광대)무늬로, 블록 체크의 각 블록이 마름모꼴인 체크무늬</p>
<p>하운즈 투스 체크 (Hound's Tooth)</p>		<p>흑과 백 또는 진하고 옅은 색을 사용한 창살 무늬 줄로 세퍼드 체크보다 무늬가 거칠고 크며 형태가 사냥개의 어금니처럼 보이는데서 유래된 체크무늬</p>

IV.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크 패턴 분석

1. 이미지별

1) 클래식한 이미지

체크를 이용한 작품 중 클래식한 이미지의 정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5, 6>는 각 디자이너의 작품 중 특징적인 것만을 살펴본 것으로 <그림 4>는 전통적인 느낌의 Kilt를 응용한 랩 스커트와 검정색과 부분적인 체크를 이용한 상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적이고 지적인 느낌과 함께 편안한 느낌을 주며 Loewe의 작품이다. <그림 5>은 노랑색, 녹색, 검정색의 Tartan Check무늬의 더블 jacket이 회색과 검정색의 줄무늬 바지, 녹색에 금속성 장식을 댄 모자, 녹색과 청색 트리밍을 댄 장갑과 화려한 스카프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Yves Saint Laurent 작품으로 이지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림 6>은 재킷과 소매의 햄라인과 재킷다트를 사선으로 장식한 글렌체크의 슈트로 엄격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고집하는 JIL Sander작품으로 편안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준다.

2) 캐주얼한 이미지

체크를 이용한 캐주얼 웨어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는 알록달록한 블록체크의 각 블록이 마름모꼴인 이 모양의 체크는 하리퀸 체크로 울긋불긋하지만 그린, 핑크, 레드, 블랙, 화이트 각각의 색상 모두 조화롭게 어울린 H라인의 원피스이다. <그림 8> 엘로우와 그린, 블루의 임팩트한 블록체크·플레이어 스커트가 블루의 탑웨어와 어울려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

3) 장식적인 이미지

원래 체크는 단순하고 현대적이며 클래식한 느낌이었으나 최근 들어 여러 디자이너들은 체크를 이용하여 장식적인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그림 9, 10>과 같다. <그림 9>는 Jean Paul Gaultier 작품으로 단순한 검정색 폴라에 Tartan Check를 이용한 레이어드 기법으로 만든 바지가 조화되어 있으며 마치 집시가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림 10>은 여성스러운 라인과 스타일을 펼치는 Anna Molrari는 짧은 재킷안에 보우타이로 장식된 블록체크의 블라우스를 조합해 여성스러우면서도 쿼트한 룩을 표현했다.



<그림 4> Suit, Loewe, Collections 94~95 A/W Madrid



<그림 5> Pants suit, Yves Saint Laurents, collection 92~93 A/W Paris



<그림 6> Pants Suit, JIL Sander, Collections 2000 S/S



<그림 7> One piece, loeterg, Collections 2000 S/S

<그림 8> Flare skirt, Balmain, Collections 2000 S/S

<그림 9> Pants suit, Jean Paul Gaultier, Collections

<그림 10> Blouse, Anna Molirari, Collections 2000 S/S

4) 민속적인 이미지

1980년대 이후 복식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민속풍은 체크를 이용한 작품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는 G.Ferre의 작품으로 빨강색, 파란색, 흰색의 Madras check skirt에 동양풍의 블랙재킷과 X형태의 펄프밍된 탑웨어와 조화시킨 오리엔

탈 룩을 보여준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일본의 사무라이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그림 12>는 멕시코풍으로 Zang Toi가 발표한 작품인데 붉은 계열의 Tartan Check 원피스에 검정색 가죽 모자, 장갑, 부츠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11> 오리엔탈풍 suit, G.Ferre, Collections 2000 S/S

<그림 12> 멕시코풍 suit, Zang Toi, Fashion Today, 1994. 7

2. 체크 무늬 조합 및 변형

1) 서로 다른 체크와의 조화

각종의 체크무늬를 이용하여 마치 패치 체크를 한 듯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은 녹색 및 붉은색 계열의 색채에 각기 다른 크기의 체크를 vest, pants, jacket에 이용하여 조화를 이룬 것으로 도시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14>는 크기가 각기 다른 흑백의 블록체크를 로맨틱하게 풀이한 스커트와 홀더넥 블라우스, 짧은 재킷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며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13> Pants suit, Les Complice, Collections 95 S/S Milan



<그림 14> Suit, John, Gallano Collections 2000 S/S



<그림 15> Suit, Runschau 1998.2.



<그림 16> Suit, Emanuel Ungaro, Collections 95~96 A/W

2) 체크와 다른 무늬와의 조화

최근 들어서는 체크만의 이용이 아닌 다른 무늬와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는 빨강, 검정, 흰색의 Tartan Check의 jacket과 바지에 꽃무늬 소재를 이용한 모자와 드레이퍼리된 장식용 스커트를 배치시켜 상큼하면서 귀여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16>은 동물무늬

와의 조화를 보여주는 Emanuel Ungaro의 작품으로 지적인 이미지와 함께 야성적이고 이중적이며 은밀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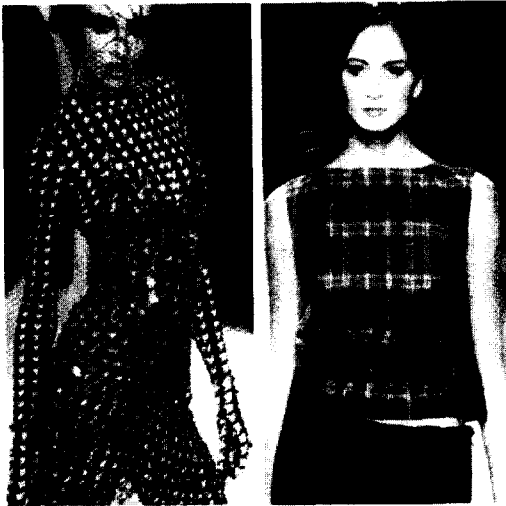
3) 체크의 변형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조하는 실험정신은 갖은 디자이너들로부터 더욱 새롭고 세련된 스타일의 변형된 체크무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7>은 존 갈리아노의 건 클럽(Gun Club) 체크로 표현된 타이트룩으로 형태가 비슷한 거미줄 모양의 장식과 함께 전위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18>은 보색관계와 바아올렛과 옐로우를 결합시킨 타탄체크를 볼 수 있는데 웨이스트를 주

름으로 처리해 체크의 선을 무너뜨리는 것이 신선하게 표현됐다.



<그림 17> Suit, John, Gallano, Collections 2000 S/S
 <그림 18> Blouse, philosophy Collections 2000 S/S

V. 결 론

본 연구는 체크 패턴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먼저 수직·수평선을 이용한 예술사조와 아울러 격자무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며 또한 Fashion Design에서 꾸준히 적용되고 있는 체크 패턴을 이미지별, 체크무늬 조합 및 변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ondrian의 신조형주의는 Op Art와 Minimalism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패션 디자인에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즉 Mondrian은 수직·수평선을 이원론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근본 사상은 그의 작품에서 극단적인 기하추상의 수직·수평선에 이르는 과정은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Mondrian의 이러한 신조형주의는 Op Art와 Minimalism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구성에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격자무늬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투루리아 시대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Madras 체크와 Scotland 체크로 크게 구분된다. Madras 체크

는 인도의 "Madras"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머리를 덮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초목염에 의한 특유의 발색과 염색의 번짐에 특징이 있으며, 인디안 레드, 인디고, 골드 등을 중심으로 색채의 변화가 다양하고 풍부한 무늬를 지닌 것이다.

Scotland 체크를 대표하는 타탄의 종류는 수백종에 이르는데 하나같이 수직·수평선의 무늬 분할이 같고 제직시 교차하는 stripe이 많은 격자무늬가 나타나며 색채가 화려한 격자무늬의 친으로 Scotland인들의 전통 민속복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애용하고 있다.

셋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체크패턴을 이미지별 체크 무늬 조화별, 체크의 변형으로 분석한 결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heck는 거의 모든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개성을 그들의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었으며, 패션 이미지별 작품분석한 결과, 클래식한 이미지, Casual한 이미지, 장식적인 이미지, 민속적인 이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체크패턴은 클래식하고 심플할 뿐만 아니라 현대패션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Jean Paul Gaultier의 작품 중에서는 Casual한 이미지의 디자인에서는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집시풍에서는 마치 집시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복식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민속적인 이미지에 체크를 이용한 작품을 분석한 결과, 오리엔탈풍, 아프리카풍, 중동풍, 멕시코풍, 이집트풍, Scotland풍의 복식을 볼 수 있다.

체크무늬 조합 작품을 분석한 결과 여러 종류의 체크끼리 조합한 경우 주로 이용되는 무늬로는 꽃무늬, 동물무늬, 기하학 무늬 등이며 또한 단색과 체크가 조화를 이룬 디자인도 볼 수 있었다.

체크무늬 변형을 분석한 결과, 체크의 선을 무너뜨려 신선하게 표현했으며, 특히 John Gollaro는 건클럽 체크무늬에 비슷한 거미줄 모양의 장식과 함께 더욱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체크패턴은 '편안함'과 함께 다양하게 표현된 체크의 '다채로움'을 살펴볼 수가 있다. 따라서 체크 패턴은 무한한 응용력을 지닌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디자이너 중에서도 체 크를 이용한 세련되고 아름다움 디자인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 1989, p.5.
- 2) McDowell, Colin,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 Jersey: Prentice-Hall, 1985, p.28.
- 3)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p.46.
- 4) 정병관 외, 현대 미술의 동향, 미진사, 1987, p.162.
- 5) 장워드발저, 추상미술의 역사, 미진사, 1990, p.60.
- 6) 辛宗泰, "Piet Mondrian 論", 啓明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5, pp.3~4
- 7) 장루이페리에 편저, 김정희 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에이피인터내셔널, 1990, p.174.
- 8) 李惠淑, "몬드리안 그림에 있어서의 수직·수평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16.
- 9) De Stijl 운동": 1917년에 창립되었으며 그해 10월 "De Stijl"지를 창간하였다. 이 데 스틸 그룹은 공통된 조형 원리를 각 예술 분야마다 예술가는 예술의 순수한 조형 작품의 제작과 이 순수한 조형예술을 위한 공명심을 지니고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 장루이페리에 편저, 전계서, p.174.
- 11) 손미희·임영자,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32호, 한국복식학회, 1997, p.267.
- 12) 정병관외, 전계서, p.169.
- 13) 전해숙, 전계서, p.46.
- 14) 金成恩, "20세기 미술사조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9, p.20.
- 15) 尹鍾秀, "Optical Art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p.1~16.
- 16) 鄭海先, "Op Art와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6
- 17)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 18) Jasia Reichardt, Concept of Modern Art- Op Art, London: James & Hudson, 1966, p.239.
- 19) Atkins, Robert, Artspeak: A Guide to Contemporary Idea, Movements, and Buzzwords, New York: Abeville Press, 1990, p.99.
- 20) 나현신, "복식의 미니멀리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20~26
- 21) 신상욱,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7, p.64(기하학적 문양은 기원전 2500년전의 이집트 벽화에서부터 볼 수 있다.
- 22) 김종복, Textile II, 도서출판 라사라, 1990, pp.127~128
- 23) 마드라스(Madras): 인도의 지명으로 타밀어로는 ccnnai이며 벵골만의 코로만델 해안. 마드라스라는 이름은 1640~1693년에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요새 겸 무역기지를 건설했던 어촌 마드라스 파트남의 준말. 그때 이곳은 면직물 산업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영국인들은 직조공과 토박이 상인들을 불러들여 요새 가까이 살도록 한데서 비롯됨
- 24) the Textile Art, p.78.